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

(2014. 12. 10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 멕시코 기준금리 동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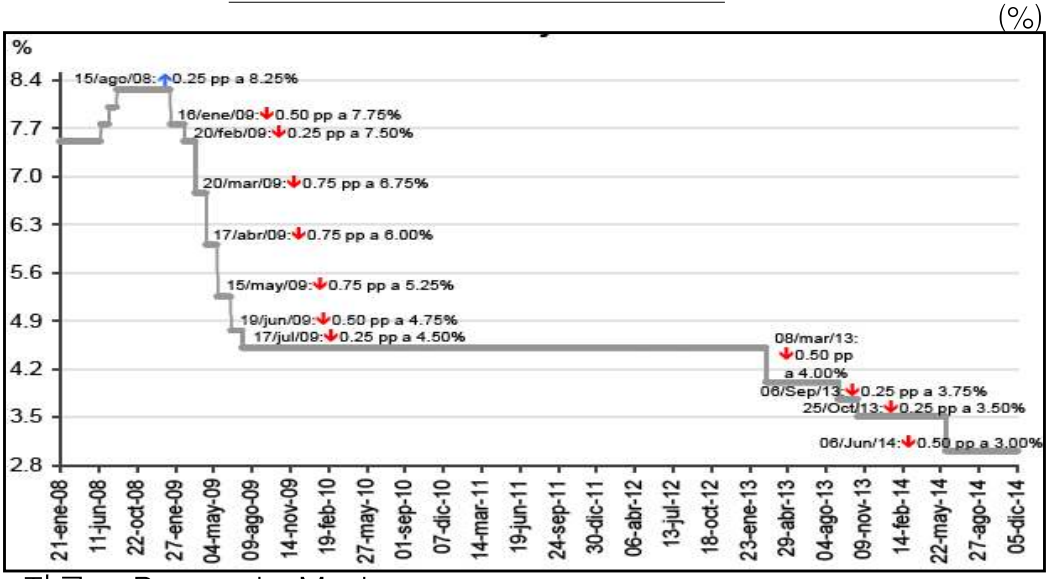
□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회, 기준금리 3.00% 동결 결의 ('14.12.5)

o 멕시코는 '14. 5월 기준금리 3.50%→3.00%(△0.50%p) 조정 이후, 7개월 연속 현 수준 기준금리 계속 유지 중

⇒ 이는 '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수준임

연도별 멕시코 기준금리 변동추이

(%)



자료 : Banco de Mexico

□ 금번 **기준금리 동결**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, 조속한 **멕시코 경제회복**을 위해 **일단 현재의 금리수준**을 **그대로 유지한 것**

o **분기별 멕시코 경제성장률**

- 1분기 1.9% → 2분기 1.6% → 3분기 2.2%

o **'14년 연간 목표 경제성장률 : 2.70%** (멕시코 재무부 기준)

2 물가상승 위험 확대

□ 최근 '14.11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32.1만명 증가 및 11월 실업률 5.8% 수치 발표 등으로 향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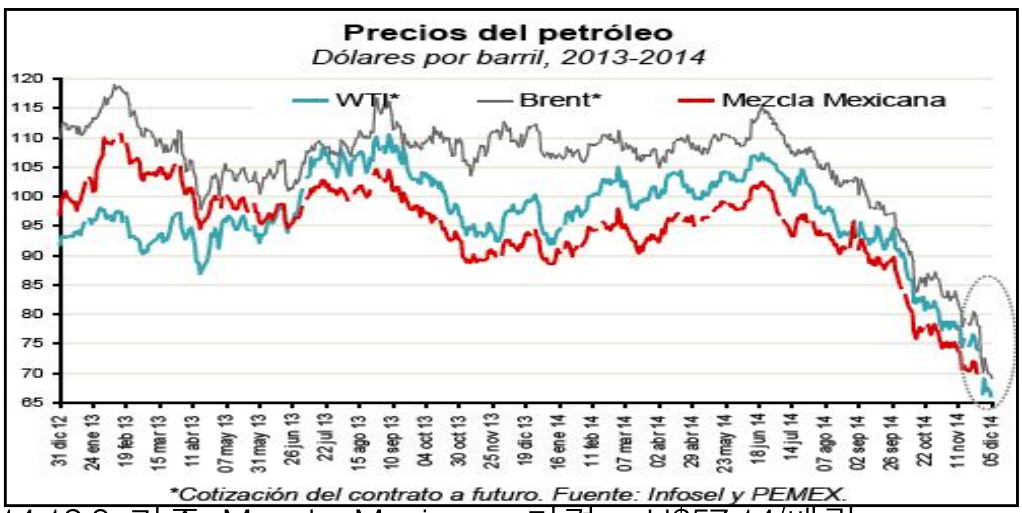
⇒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가까워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외국인의 대 멕시코 앞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

□ 또한 OPEC의 원유생산 감산합의 불발로 인한 유가급락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름이 가기 시작함

o 멕시코정부의 재정수입 중 약 1/3은 원유판매 수입에서 충당 되는데 유가하락은 국가재정부족으로 연결되어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빨간등이 켜질 가능성 있음

세계 주요 원유가격 변동 추이

(USD)



* '14.12.9 기준 Mezcla Mexicana 가격 : U$57.14/배럴

o 또한 향후 **유가약세 전망**에 따라 지금까지 멕시코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**에너지 개혁 관련 민간(외국인 포함) 기업의 에너지사업 투자수요도 줄어들 것**으로 예상

□ 상기 언급된 요인 등으로 인해 **최근 미달러화 대비 페소화 평가절하로 멕시코 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**

o 당초 금번 기준금리 동결시 **멕시코 중앙은행 목표치인 3%±1% 내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율 유지**가 **가능**할 것으로 예상 했었음

o 그러나 **최근 멕시코 페소화의 평가절하 속도*가 너무 빨라 물가상승 압박이 커진 상황**

⇒ *멕시코중앙은행 외환시장개입 의사 표명*

"전일 대비 1.5% 이상 페소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2억불/일 범위내에서 시장개입"

*('14.11.4) Peso13.569/U$ → (12.1) Peso13.941/U$ → (12.. 9) Peso14.392/U$

□ 기준금리 관련 현지의견으로는 **현재의 페소화 가치하락**이 **물가상승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**은 **미미**할 것으로 예상되나 **현 상황지속**시에는 **물가상승 압력증가**로 **현 기준금리 수준 유지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**는 것임